우리기업의 대중국 진출시 고려사항

Ⅰ.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 실태

□ 여전히 노동집약적 산업에 치중

○ 우리나라의 對중국 투자는 주로 제조업 분야에 집중됨

· 2001년말 우리나라의 對중국투자(총투자 기준)는 54.1억 달러임.

· 이중 83.9%인 45.3억 달러가 제조업 분야 투자이며, 서비스업의 경우, 12.8%인 6.4억 달러에 불과함.

○ 제조업 가운데에서도 의류, 완구, 신발 등 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 진출함

· 1992년 수교 당시 중국의 저임 노동력 활용 및 수출 위주의 외국인 투자 정책 시행에 부합함.

⇒ 외환위기 당시 중소기업이 자금압박으로 對중국 투자를 축소하거나 철회한 반면, 대기업 중심으로 기계·전자, 화학 등의 투자가 늘면서 기술집약적 업종의 투자비중이 50%를 상회함.

□ 환발해만 지역으로 투자 편중

○ 對중국 제조업 투자 가운데 62.4%가 환발해만 지역에 집중됨

우리 기업 대중국 제조업 투자 현황(2001년말)

(단위: 건, 억 달러)

		환발해만	장강 삼각주	기타 지역	계
건수		4,087	706	1,261	6,054
금액		33.7	13.0	7.3	54.0
	비중	62.4%	24.0%	13.5%	

주) · 環渤海灣 지역은 北京, 天津, 河北, 山東, 遼寧(山西省 제외)

· 長江三角洲 지역은 上海, 江蘇, 浙江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에 의거, 작성

□ 최근 對중국 투자 감소 추세

○ 기업 내부요인

- IMF 관리체제 등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자금 부족
- 중국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 부족

○ 기업 외부 요인

- 중국의 노동집약산업 분야의 공급 과잉 및 기업 경쟁력 강화로 노동집약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 중국 첨단 기술 산업 위주로 외국인 투자 유치

⇒ 첨단 기술산업에 대해서는 내수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시장과 기술의 교환' 전략 구사

우리나라의 연도별 대중국 투자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전 체			중 국				
	건수	금액	평균 금액	건수	비중	금액	비중	평균 금액
1992	497	1,219.4	2.5	170	34.2	141.1	11.6	0.8
1993	682	1,261.6	1.8	381	55.6	264.0	19.0	0.7
1994	1,485	2,299.6	1.5	841	56.6	633.1	27.5	0.8
1995	1,309	3,071.8	2.3	747	57.1	828.4	27.0	1.1
1996	1,451	4,248.5	2.9	734	50.6	888.5	20.9	1.2
1997	1,299	3,229.6	2.5	628	48.3	716.1	18.4	1.1
1998	585	3,895.1	6.7	257	43.9	677.4	17.4	2.6
1999	1,029	2,549.7	2.5	454	44.1	337.2	13.2	0.7
2000	1,865	3,677.9	2.0	751	40.3	370.6	10.1	0.4
2001	2,032	3,258.0	1.6	990	48.7	466.0	14.3	0.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현지화 정도 매우 낮음

○ 선진국 기업에 비해 우리 기업은 원자재, 부품의 해외 수입비중이 높음

○ 관리직의 대부분을 파견 근로자가 담당함

⇒ 중국 근로자에 대한 승진 기회 부족 및 파견 근로자에 대한 고임금 지급으로 현지인과의 과다한 임금 격차 발생으로 갈등 야기.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중국 인재 흡인력 비교

국가	독일	미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
인재흡인력	강함	매우 강함	비교적 강함	비교적 강함	비교적 약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북경사무소

□ 소수기업만 이익 실현

○ 제조업 부분에 종사한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 평균 수익률은 -0.6%로 매우 저조함.

⇒ 외국인 투자기업 적자기업 비중이 전체 기업의 60% 수준

□ 수출 비중 높음

○ 생산제품의 수출비중이 82.5%로 매우 높음. 이는 노동집약적 산업 위주의 투자가 높은데 기인함.

○ 유럽 기업들의 수출 비중은 20% 대 수준으로 중국 내수시장 개척에 주력함.

국가별 대중국 투자 경영지표 비교

국가	독일	미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
제조업 판매 수익률	9.4%	8.0%	6.2%	3.0%	-0.6%
수출 비율	8.2%	26.2%	21.4%	59.8%	82.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북경사무소

Ⅱ. 미·일 기업의 대중국 투자 실태

□ 미국의 對중국 투자는 적극적인 반면 일본은 소극적

○ 일본의 해외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중국 투자는 감소해 왔음. 반면 미국계 기업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그동안 일본 기업은 중국 정책 변화를 관망하는 자세를 견지해 왔음. 그러나 최근 WTO 가입을 계기로 도시바 등 일본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중국 진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음.

○ 반면 미국 기업들은 중국 개방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감지하고 대중국 진출에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함

○ 특히 WTO 가입을 위한 개별 국가와의 쌍무 협상을 시작한 1998년부터 미국의 대중국 투자가 보다 활발하였음.

연도별 미·일 기업의 대중국 실제 투자액 및 비중

(단위: 억 달러)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일본	13.2	20.7	31.0	36.7	43.2	34.0	29.7	29.1
비중	4.8%	6.2%	8.3%	8.9%	9.6%	7.5%	7.4%	7.2%
미국	20.6	24.9	30.8	34.4	32.3	38.9	42.1	43.8
비중	7.5%	7.4%	8.2%	8.3%	7.2%	8.6%	10.4%	10.7%

주) 중국 전체 외국인 투자 실제 유입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대외무역경제합작부

□ 미국 기업은 수익 창출력이 높은데 반해 일본 기업은 낮음

○ 미국 기업은 원·부자재 등의 현지 조달에 중점을 두는데 반해, 일본 기업은 수입에 의존함

대중국 진출 미·일 기업의 연도별 수익률 비교

	1995	1996	1997	1998	1999
미국	7.4%	21.3%	23.0%	6.8%	13.0%
일본	1.8%	1.1%	0.9%	1.5%	▲0.0%

자료 : 金堅敏, 對中投資收益性を高めるための競爭力强化策, 國際金融, 2001.10.1

일본 기업의 원·부자재 현지 조달 비율

	30% 이하	30~50%	50~70%	70% 이상
1996	46.6	9.1	11.6	32.7
1999	39.7	12.9	11.1	36.3

자료 : 金堅敏, 對中投資收益性を高めるための競爭力强化策, 國際金融, 2001.10.1

□ **미국 기업은 시장참여 제한에, 일본 기업은 대금회수 등에 불만 높아**

○ 미국 기업은 높은 관세율, 내·외국인 차별대우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 일본 기업은 외국인 투자 제도·정책 등의 일관성 결여, 대금회수 부진, 근로자 해고 경직성 등에 불만을 나타냄.

Ⅲ. 향후 우리 기업 대중국 투자 전략 방향 및 고려사항

1. 투자전략 방향

□ **장기적인 투자 전략 필요**

○ 단기적인 이익 추구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중국 사업을 추진하며,

○ 투자 쌍방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win-win 전략 구사 필요

□ **적극적인 현지화 작업 필요**

○ 현지 우수 인력의 적극적인 채용 및 승진기회 보장 등으로 기업 현지화 노력이 필요함

□ **기술 우위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점진적인 시장개척 노력이 필요함

⇒ 노동집약 산업의 대중 투자로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는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금융, 유통, 서비스업 투자 확대**

○ 금융, 유통, 서비스업 등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기진출 제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활동 지원으로 우리기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임.

□ 인수·합병(M&A) 형태 투자 검토

○ 최근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 방식의 하나로 인수·합병을 통한 중국 진출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인수·합병 방식의 투자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인수·합병 투자 진출시 중국내 관련 법률 및 소유권 문제, 노사 관계 등 장애요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됨.

⇒ 시장과 유통망을 갖춘 우량 국유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투자 진출시 고려사항

□ 충분한 사전조사로 시행착오 최소화

○ 기업들은 충분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함. 우리 기업들은 사전조사는 등한시하고, 조속한 공장가동에만 주력함

⇒ 중국은 계획경제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어 제도와 관행 등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조사 없이는 당초 계획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함.

○ 생산의 비교우위 확보 차원에서 중국 진출이 고려되어야 함.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반드시 현지 시장에서 판매되어야 한다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음. 완성품, 원·부자재, 부분품의 생산공정 가운데 중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생산공정을 선택·운영하는 전략이 모색되어야 함

□ 국내 상위에 랭크된 품목으로 투자

○ 국내 시장에서 수위에 랭크된 제품을 중심의 투자 진출이 브랜드 인지도 제고가 용이하고 차별화 전략 가능

⇒ 산업 전반에 중·저가 상품이 공급 과잉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급 기술과 설비로 소비시장을 개척하려는 전략은 전적으로 재고되어야 함.

⇒ 중국의 주요 상품(공산품 466개, 농산품 134개)에 대한 조사에서 조사 대상의 86%에 해당하는 518개 상품이 공급 초과인 것으로 조사됨(市場報, '02. 1. 4)

⇒ 다국적기업들은 공급과잉 상태인 일반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는 억제하는 반면, 제품 경쟁력을 갖춘 중국기업으로부터 OEM 생산을 추진하고 있음

○ 우수한 품질과 높은 브랜드 인지도가 외상 거래가 대금결제에서 현찰결제와 같은 양호한 결제조건을 담보할 수 있는 필수조건임

□ 목표 마켓 집중화

○ 중국은 민족간, 지역간, 도·농간, 계층간 소비행태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한 역량을 집중한 후 점진적 확산형 마케팅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더욱이 소비자를 세분화하지 않은 투자 전략은 초기 투자규모의 확대를 가져와 그만큼 기업의 위험을 가중시키게 됨

⇒ 지역 확대는 브랜드 인지도 확산을 위한 광고 및 판촉 비용의 확대 필연적

□ 규정과 제도에 의거한 철저한 正道 경영

○ 중국의 변화된 투자환경을 고려하여, 장려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WTO 가입 후 중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더욱이 장려사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 등이 여러 가지 명목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사소한 이익을 탐하거나 인맥(關係)을 이용한 현지인과의 유착경영은 향후 회사 이익 발생시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단초가 됨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 본사와 자회사간의 공감대 형성 필요

○ 중국 자회사의 내수시장에 대한 이해, 브랜드 확산을 위한 판촉 및 광고활동 등에 최소 2~3년의 시간이 경과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한 외형 신장 요구는 외상 매출액 증대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할 수 있음

⇒ 생산자이건 최종소비자를 위한 대리점 판매이건 물품 공급 후 일반적으로 6~12개월 정도의 외상거래가 보편화되어 있음을 감안할 필요 있음.

□ 기타

○ 수출과 내수를 병행하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내수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해외시장 확보 차원에서 투자 진출한 기업들이 안정된 수출시장을 바탕으로 중국 내수시장 개척에 나서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하겠음

○ 완성품 시장보다는 먼저 부품·소재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략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완성품의 소비자는 대부분 중국의 일반 대중인 데 비해 부품·소재의 소비자는 기업인만큼, 기술력을 바탕으로 부품·소재산업에 진출하는 것은 복잡한 유통구조와 익숙하지 않은 상관습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 부품·소재 시장 정착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완성품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내수시장 확보를 위해, 유통 등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요망됨. 예를 들면,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시 가장 큰 애로사항이 판로 확보 어려움과 생산대금 미회수 등임

⇒ 대형 슈퍼마켓, 할인점 등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유통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시장개척 어려움과 외상매출액 증가에 따른 흑자 도산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서부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어야 함. '중서부 지역 외국인투자 비교우위 산업 목록'에서 정한 분야에 투자할 경우, 15%의 기업소득세(법인세)율이 적용되는 세제상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음. 또한, 지방정부들

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외에, 내수시장 진입에 대한 제한이 크게 완화된 점과, 서부지역 진출이 시장선점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문의 : 국별조사실 부부장 김주영 ☎ 3779-6647, jykim@koreaexim.go.kr
차 장 전선준 ☎ 3779-6650, jsjun@koreaexim.go.kr
대 리 이지언 ☎ 3779-6655, jeyi@koreaexim.go.kr